

반도체 너마저... '트럼프 관세' 시작도 전에 수출 비상등

2월 누적 수출 전년 대비 4.8% ↓
반도체 품목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기차는 캐즘 영향에 25% 줄어
트럼프 관세전쟁에 불확실성 ↑
對美·對中 의존도 완화는 긍정적



지난 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8%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예고 이후, 당장 다음달부터 관세 부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달러,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월까지 누계 수출액을 보면 수출 호조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고,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3000만달

러로, 전년 동기(1068억3000만달러) 대비 4.75% 감소한 수준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은 96억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고 15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 낸드 등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61억달러로, 전년

11월 이후 3개월간 역성장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큰폭(74.3%) 증가로 인한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전기차 수출은 24.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9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중국 수출은 1.4% 감소한 95억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2월 1~25일까지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1.9%, 9.8% 증가했다. 반도체 위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위주로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런 추세는 트럼프의 반도체 25%, 중국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로 보합 수준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중국, 대미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2월 대아세안 수출은 12.6% 증가한 96억달러로 역대 2월 중 2위 실적을 기록했고, 대인도(+18.6%), 대중동(+19.6%) 수출도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역대 최대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 등 원팀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저소득층·복지시설 고효율 에어컨 교체

산업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정부가 저소득층 5만4000가구와 75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지원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는 1076억원을 투입되고, 난방지원은 3만6000가구와 250개 시설을, 냉방지원은 1만8000가구와 500개 시설 지원이 목표다.

지원 방식은 신청가구 및 시설별 지원단가 내에서 시공과 물품이 지원되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냉방지원사업은 여름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4월 18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빈집 개조 박차... 63억 투입해 생활인구 유입 촉진

상반기 중 3곳 시범대상 뽑아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도 추진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개조된 농촌 빈집의 모습. /농식품부

농촌 빈집을 개조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사업이 추진된다. 빈집이 마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영화관·창업공간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3곳을 시범 대상으로 뽑아 포함 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촌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민관이 이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사업'이 정부 주도로 시작된 것이다. 빈집을 주거·위케어,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

동부역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정부는 지자체(시·군)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에 개소당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경제·경기진작 관리대상 사업 중 하나로서, 빈집 철거 등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

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정비 통합지원TF' 구성·운영 및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빈집 정비·활용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 공주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찾아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민국 채용博 사전등록 하세요”

고용부, 19~20일 aT센터서 개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부처 합동으로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사전 참가 등록 접수에 들어갔다.

박람회에는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등 8개 부처가 모인 주요 분야별 구인기업 120곳이 참여한다.

'기업 채용관'은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올해 채용계획, 인재를 설명한다. 참여기업은 오는 10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업별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내일On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대 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사 지원을 위한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다.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BCI 기술표준' 개발논의 韓 주도 진행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표준 개발 논의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6일까지 4일간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미국·중국·인도 등 9개국 70여명의 기술표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 C1SC43)'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CI는 사람의 뇌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수집하고 해석해 디지털기로 연결하는 융합 기술로, 생각만으로 전등을 켜고, 신체보조로 보트를 움직이는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2022년 설립했으며, 기술 상용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용어, 데이터 형식, 활용사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개발 작업반 의장을 수입했다.

이번 총회 기간 우리나라는 사용자 연령층 등 설계지침을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BCI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BCI 개발자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표준'과 사용자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다목적 BC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지침 표준' 등 2가지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한다.

/세종=한용수기자

공기관 실시간 전력사용량 대국민 첫 공개

산업부 공공기관 그린버튼 통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4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 일, 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민에 공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앞서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

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 등을 구축해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